

#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원·단속 병행

익산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시설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규모의 기업이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한다. 지난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현재까지 32개 업체, 26억원이 지원됐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와 함께 대기질이 악화되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력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특별관리공사장, 미신고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이다.

다.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세탄시설(건설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영세사업장에서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이 2020년도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결과 2013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4년 인증'을 획득했다.

## 원광대 치의학교육 '4년 인증' 획득

### 2013년·2017년 이어 세 번째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치과대학이 2020년도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결과 2013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는 국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양질의 치과의를 양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치의학 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적용되는 4년 인증 획득 통보를 받은 원광대 치과대학은 2018~2019학년도 치의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교육 과정, 학생, 교수, 자원, 임상교육환경

등 6개 영역 7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현장실사와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받았다. 한편, 2017년부터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사 학위를 받아야만 치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치과대학장 이흥수 교수는 "그동안 평가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교수님들과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도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우수한 치과 의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대, 신입생 LIVE 오리엔테이션 '호응'

### 대학본부서 입학식도 개최

군산대학교는 23일 202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온라인 LIVE로 개최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데 유용한 안내를 해주는 중요한 과정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산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군산대학교는 23일 202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온라인 LIVE로 개최했다.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고, 광병선 총장이 실시간으로 신입생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병선 총장은 대학의 비전과 슬로건을 소개하며 "비대면 사회인 언택트를 지나 현재 온라인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언택트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사람이 각 분야의 점과 점을 잇는 연결점이 되고 있는 만큼,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대학교의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이고, 슬로건은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이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같은 날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1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하고 각 단과대학별 대표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익산=남현봉 기자

## 익산소방서,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점검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해빙기를 맞아 내달 15일까지 소방용수시설 총 1,190개소(소화전 1,162개소, 급수탑 9개소, 비상소화장치 1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겨울철 동파와 해빙기로 인한 지반약화 문제점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관내 소방용수시설 총 1,19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익산소방서가 추진하는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외관점검 및 방수기능여부확인, 표지판 및 보호를 관

리 상태확인, 소화전 내의 이물질 확인 및 정비 등으로 가동상태 100% 유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차량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일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점검을 통해 화재대피 대응태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민원담당 친절공무원 선발

### 시민들이 홈페이지 및 청사 내 칭찬엽서, 편지 통해 추천

군산시는 조직 내 친절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직원간의 공감과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민 추천 '2021년 민원담당 친절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연중으로 홈페이지 내 '칭찬합시다' 게시판과 청사 내 비치한 칭찬엽서, 편지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민원담당 친절공무원 추천을 진행한다. 선발대상은 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시민 감동을 위해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며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 처리로 시민편익 증진과 민원행정제도 개선 등 감동행정을 구현하는 공무원이다. 선정방법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 추천 공무원과 신속한 민원업무 협조를 통한 동료추천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수 추천된 민원담당 친절공무원에 대하여 적격 심의를 통해 상·하반기 친절공무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친절공무원 선발을 위해 청사 내 중앙로비 등에 칭찬엽서와 칭찬엽서함을 설치해 행정서비스에 만족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칭찬엽서와 편지를 작성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일준 시장은 "진정한 시민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친절한 자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친절 공무원 선발을 통해 친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며 모든 시민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 일가족 4명 확진 감염경로 조사 중

코로나19에 일가족 4명이 확진되며 추가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백종현 군산시보건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군산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군산 157번 확진자 A(40대)씨는 18일부터 가래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산 158번 확진자 B(50대)씨는 22일 오후 5시 30분 경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23일 새벽 5시 30분 경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가족의 방문지에 대한 CCTV를 확인하고 소독을 실시했으며 추가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3월 1일부터 신청·접수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제에 의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나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